



2022년 5월 8일(제1087호)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聖召) 주일이며 어버이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어버이날은 꽤나 뜻깊은 듯합니다. 천상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찬미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낳아 길러주시는 지상의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두 가지 차원의 효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모든 군종교구민들께서 하느님과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군 생활 중 만나게 된 소중한 배우자와의 혼인성사를 위해 입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 미사에 참석하다 보니 장성해서도 자연스럽게 성당에 나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집에 받을 들이게 된 것과 믿음을 갖게 된 과정에는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기에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생일대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거창한 개념을 말씀드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성소(聖召)’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곧잘 사제 성소나,

“부르심”

수도자 성소를 가리키거나 언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제, 수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이며, 그것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보편적 부르심’을 떠올려본다면 부르심의 형태와 그 응답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의 상하(上下)나 경중(輕重)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소 주일을 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군종교구민들 또한 이번 주 여러 성소 증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소중한 부르심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귀 기울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기쁜 부활의 나날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강(크리스토폴) 신부
총장(제31보병사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변호송

사도 13,14.43-52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목시 7,9.14ㄴ-17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0,27-30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무 번째 시한

그러나 그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출생했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광둥(廣東) 지방의 마카오에서 자랐고 천주교인입니다. 호기심에서 또 나의 종교를 전파하고 싶어서 이 해역에 오게 되었소.” 그는 저를 다시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 아주 많은 포졸을 거느린 한 작은 관리가 도(道)의 수도인 해주(海州)로 저를 압송하였습니다. 감사(監司)가 저더러 중국인이냐고 물으므로 저는 섬의 관리에게 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관하여 제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에게 영혼의 불멸(不滅)함과 지옥과 천당, 천주의 존재와 사후의 행복을 위해 그분을 공경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옳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임금이 천주교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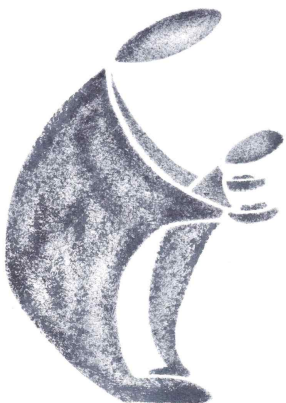
이어 그들은 교우들과 포교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난 어조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벌로 고문을 시키겠소.” 하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고 저는 형구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그것들을 감사의 발밑으로 집어 던지며 “자, 준비가 다 되었으니 치시오. 나는 당신들의 고문을 무서워 하지 않소.” 하고 감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그것들을 치워 버렸습니다. 감사의 이 하인들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감사에게 말할 때는 자신을 소인(小人)으로 부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대인(大人)이고 양반입니다. 나는 그런 말은 모르오.”

며칠 후 감사가 저를 다시 출두시키고 중국에 대한 질문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중국 사람인지 알려고 통역을 통해 제게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님과 함께 춤을

님의 발에 올라, 그의 호흡을 따라
 님의 손을 잡고, 한발 한발
 님의 눈을 맞춰,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성화이야기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관객의 눈높이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주는 성모님을 그리고 있다.

로베르 캉팡
1424년 작
패널 위 유화
29x46cm
필리델피아 미술관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그리고 정교하게 그린 이 그림 속 예수님은 우리의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며,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가슴에 달린 장식품을 자세히 보면, 유리(거울)가 그려져 있고, 그것에 반사된 장소에 관객이 위치한다.

이렇게 이 그림은 조용한 관조와 묵상을 이끌어내는 그림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그분께 한 걸음 나아가게 돕는다.

“나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태평 남동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동해(육군제2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8일(주일)
- 국장회의 / 사제평의회 / 참사회의
 때: 5월 10일(화)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뻐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